

올여름 극장가 '영웅' 안중근이 온다

국내 대작 코로나19 뚫고 개봉 준비 할리우드 대작들은 일제히 연기 연상호 감독 '반도' 개봉도 큰 관심

올여름 극장가는 한국 텐트폴(가장 흥행에 성공할만한 작품) 영화들의 '집안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년 여름 등판하던 할리우드 영화들이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제히 개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배급 사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개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올여름 개봉을 확정된 영화는 연상호 감독의 '반도'(뉴). 지난 2월 말부터 홍보·마케팅에 돌입했다. '부산행'(2016) 이후 4년, 폐허가 된 땅에서 남은 사람들이 쫓겨와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다. 강동원 과 이정현이 주연을 맡았다.

최근 폐허가 된 땅과 좀비들 모습을 담은 1차 예고편을 전 세계에 공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미국 연애매제 인디와이어가 뽑은 올해 칸 영화제 초청 예상 리스트에도 올랐다.

뉴 관계자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동명 뮤지컬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영웅'을 여름에 선보이기로 했다.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의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한 순간까지의 1년을 그린다. 윤재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2009년 뮤지컬 초연부터 안중근을 연기한 정성화가 영화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았다.

앞서 여름 개봉으로 알려졌던 '서복'은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라고 CJ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를 텐트폴로 내세운다. 1990년대 소말리아 내전에 고립된 남북대사관 공관원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그렸다.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가 출연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촬영 중이었던 예정된 영화들의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모가디슈'의 경우 이미 모로코에서 촬영을 마치고 현재 후반 작업 중이다.

메리크리마스스의 '승리호'도 7월 말~8월 초에 개봉할 계획으로 역시 후반 작업 중이다. 우주를 배경으로



'영웅'



'반도'

한 SF 블록버스터로, 김태리와 송중기가 주연을 맡았다.

메리크리마스 관계자는 '승리호'에 대해 "여름 시장에 개봉할 만한 영화"라며 "여름 개봉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박스는 '싱크홀'을 선보이려 하지만, 아직 개봉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1분 만에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영화로, 차승원이 주연한다.

국내 배급사들이 여름 개봉을 준비하지만, 할리우드 텐트폴 영화들은 일제히 개봉이 연기됐다.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6월 개봉 예정이던 톰 크루즈 주연 '탑건 매버릭'을 12월로 연기했고 7월 예정이던 소니 픽처스의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와 '모비우스'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디즈니의 '블랙 위도우'와 '물러남', 유니버설의 '분노의 질주' 9편, MGM의 007시리즈 신작 '노 타임 투 다이'의 개봉도 모두 연기됐다.

이는 한국 영화들에 위기가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할리우드 부재 속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그동안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관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여름 시장을 겨냥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한국 대작보다 앞선 6월 말~7월 초에 개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 개봉한다면 많은 관객을 불러모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약제였던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것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에서 국내에서보다 가팔라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호재다.

그러나 개학이 늦어져 짧아진 여름방학 탓에 관객이 평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약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봄을 지나 여름까지 지속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우선 여름 개봉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변수가 많아 배급 전략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지섭 결혼...17살 연하 조은정과 혼인신고

결혼식 대신 5천만원 기부

배우 소지섭(43)이 17살 연하 아내인 조은정(26)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7일 법적인 부부가 됐다.

소속사 51k(피프티원케이)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열애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소속사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을 조용히 간직하고 싶다는 소지섭과 조은정의 뜻에 따라 식은 직계 가족들끼리 모여 조용히 치렀다"고 했다. 소규모 비공개 예식이나 스몰웨딩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식사하며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굿네이버스에 5천만원의 기부, 교육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태블릿 PC와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을 대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지섭은 소속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깜짝 결혼 발표를 높랐을 팬들에게 "나를 긴 시간 신중히 내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그동안 저를 옹호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하는 결혼



소지섭

조은정

소식에 마음이 무겁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배우로서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지섭과 조은정은 2018년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났다. 이후 지인과의 모임 자리에서 친분을 나누다가 호감을 갖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지난해 5월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조은정은 이화여대 한국무용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14년 게임 전문 채널 OGN을 통해 아나운서로 데뷔했고, SBS TV '본격연예 한밤'에서 2018년 6월까지 리포터로 활동했다. 현재는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것은 조은정이 '본격연예 한밤' 리포터로 활동할 때다. 소지섭은 2018년 2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홍보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위로를 선물합니다"...안테나 뮤지션 랜선 라이브 총출동

감성적인 음악을 선보일 기획사 안테나 소속 뮤지션들이 릴레이 라이브 공연을 통해 '집콕' 중인 팬들을 찾아가는다.

7일 안테나에 따르면 안테나 소속 뮤지션 11팀은 오는 11~12일, 18~19일 오후 8~10시 릴레이 라이브 스트리밍 '에브리데이 오케이, 워드 안테나'를 선보인다.

안테나를 이끄는 수장 유희열(Toy)부터 정재형, 루시드폴, 페퍼톤스, 박새별,

샘김, 이진아, 권진아, 정승환, CHAI(이수정), 윤석철까지 총 11팀이 각각 30분씩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안테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안테나 측은 "리슨너들은 가장 편안한 공간인 '방'에서 악기 하나, 목소리 하나로 꾸밈없이 노래하는 안테나 아티스트들을 만난다"며 "작은 녹음실 안에서 모두의 방안으로 소소한 위로를 선물하는 셈"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뷰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0 좋은아침
10	00 제21대 총선 후보 법정토론 및 비초청연설 <광주복합>	40 지구촌 뉴스	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산구를 후보자 토론회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어서와(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빅스토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UHD 숨터(재)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제21대 총선 후보자 TV 경력방송 2차 5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뉴스브리핑
3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정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광양곡성구례를 후보자 토론회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뷰 셀러드(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리덤 30 꿀잼 영화가 좋다	00 5 MBC 뉴스 3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30 아성여정 플러스(재) 40 미니디큐	50 위험한 약속	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설방송 <무소속 김하진> 35 MBC 뉴스데스크	4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주철현(민주당) 50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그 남자의 기억법	35 KBC 8 뉴스 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연설-박지원(민생당)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어서와	05 실화탐사대	00 트롯신이 떴다
11	3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도올학당 수다승철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제21대 총선 후보자 경력방송 <비대표 제1차>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영성앨범 선(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3:5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0 마시와 곰	19:00 형사 가재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1/재)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7:45 개구쟁이 스머프	15:0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9:45 자이언트 팽TV
08:00 당동당 유치원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30 출동! 슈퍼윙스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0 뽀롱뽀롱 뽀로로(재)	-인산라, 치트랄
09:00 픽시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30 한국기행
09:30 페파 피그	16:10 픽시(재)	<거울 동화, 중국 신성웨이우얼 파키스탄-인산라, 치트랄>
09:4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1~2부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1:3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6:40 당동당 유치원(재)	<거울 동화, 중국 신성웨이우얼 파키스탄-인산라, 치트랄>
12:10 코로나19 극복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합니다 3부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이미
	17:20 출동! 슈퍼윙스(재)	22:40 극한직업
	17:35 페파 피그(재)	23:30 경이로운 지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8일(음 3월 16일 辛巳) ☎ 010-9790-8237

<p>36년생 소름돋은 곧 실패로 이끈다. 48년생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60년생 근본적으로 하자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72년생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84년생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겠다. 96년생 평이함에서 탈피하여 변모를 시도해 볼지하다. 행운의 숫자 : 11, 56</p>	<p>42년생 기조는 불변하겠지만 규모가 커지리라. 54년생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을 만날 수 있다. 66년생 소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78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90년생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매우 긴요할 때가 많다. 02년생 가려졌던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47, 81</p>
<p>37년생 동세가 반복 된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49년생 기회가 왔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61년생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73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라. 85년생 너무 늦었으니 살기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97년생 정도를 조절하며 현안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3, 87</p>	<p>31년생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때. 43년생 화가 북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격정하지 말라. 55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연속성을 담보한다. 67년생 과감하게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79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하라. 91년생 급한 일이 생겼으니 연락해 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07, 95</p>
<p>38년생 참으로 쉬운 일이나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50년생 마쳤던 승룡이 터지는 활로가 보일 것이다. 62년생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될 문제이다. 74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86년생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느니라. 98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줄 수다. 행운의 숫자 : 92, 52</p>	<p>32년생 지름길을 택해서 곧장 가로질러 가야겠다. 44년생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56년생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68년생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80년생 치우쳐 있지는 않나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92년생 진중하게 대하라. 행운의 숫자 : 33, 97</p>
<p>39년생 유혹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라. 51년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63년생 국부적인 면에 대한 추구가 더 낫다. 75년생 귀한 옥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도다. 87년생 골라 들 어온 복덩어리를 놓치지 말라. 99년생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3, 73</p>	<p>33년생 해독은 문제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45년생 복록의 원천이 생길 것이니 귀히 활용하라. 57년생 지금 열심히 하더라도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69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고,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말라. 81년생 믿었던 바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93년생 대화로 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동세이다. 행운의 숫자 : 25, 62</p>
<p>40년생 사라지고 있으니 잘 살펴봐라. 52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64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76년생 개화하는 형상이다. 88년생 잠 된 인연과의 만남 속에서 유용한 정보가 보인다. 00년생 무모함과 용기는 확연히 구분 되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1, 96</p>	<p>34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46년생 혼란이 따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58년생 해독은 정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될 것이니라. 70년생 의도해 왔던 바를 향해 양호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입지이다. 82년생 상대의 반응에 예의 주시해야 하느니라. 94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0, 84</p>
<p>41년생 가까운 이의 도움이 제일 실효적임을 알라. 53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에 비유할 만하니 명쾌하게 대처하라. 65년생 지나치다보면 역효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77년생 손질을 한다면 바람직한 판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89년생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한다면 국면을 타게 하리라. 01년생 긍정적 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마다. 행운의 숫자 : 31, 51</p>	<p>35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모여 들겠다. 47년생 희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59년생 막연히 부추기는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1년생 구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세신을 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83년생 무심도 같면 바늘이 되는 법이다. 95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행운의 숫자 : 42, 76</p>